

밀접 접촉자로 중간고사를 못 치르게 되면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아이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며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원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분위기라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학원 독서실 등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만약 아이가 밀접 접촉자가 돼 시험을 치르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밀접 접촉자나 확진 판정을 받아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면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_ 정연수(49·서울 송파구 잠실동)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결사의 경우,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인정점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동일 학기 내 응시한 다른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으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필평가는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는 출석이 가능한 날 기회를 부여해 성적을 산출합니다.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응시한 지필평가 점수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마다 평가 유형, 난도, 성적 분포 등이 달라서 평가 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1학기 중간고사를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사한 경우

과목 (100점 만점)	결사 고사(중간고사)		응시 고사(기말고사)	
	평균	인정점	평균	응시 고사 점수
국어	61.45	×	68.72	66.9

응시 고사 평균 : 결사 고사 평균 = 응시 고사 점수 : 기준 점수(기준 점수 × 인정 비율 = 인정점)

68.72 : 61.45 = 66.9 : ×

× = 59.82

코로나19로 인한 결사의 경우 인정 비율이 100%이므로, 59.82점이 인정점이 됨.

MORE TIP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로 자가진단을 매일 2회 진행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란 확진 환자와 2m 이내 밀폐된 곳에서 같이 머물렀거나 식사를 한 경우,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 장소와 접촉 기간 등을 고려해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진로선택 과목은 등급만 잘 받으면 되나요, 원점수도 중요한가요?

진로선택 과목은 A·B·C로 절대평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A를 받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원점수도 높아야 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_한정희 (50·경기 화성시 영천동)

원점수를 정량화하지는 않지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봅니다.

진로선택 과목의 원점수는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정량화하지는 않지만,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종합 전형은 진로선택 과목을 포함한 전 과목을 정성 평가합니다. 대학은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물론 원점수, 성취도별 비율 분포, 과목 평균, 이수자 수 등을 살펴 학생의 학업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진로선택 과목은 석차등급 없이 성취평가제를 기반으로 A, B, C 3단계로 평가합니다.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논산 대건고 박진근 교사는 "A를 받기 위해 원점수 80점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한 과목인 만큼 최선을 다해 성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듀플라자 조미정 대표는 "A만 받겠다고 생각한 학생과 진지하게 노력한 학생의 전체적인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A를 뒷받침해줄 만한 활동 과정과 수업 시간의 모습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담겨 있어야 종합 전형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MORE TIP

교과 전형도 대다수 주요 대학이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대학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 치등 점수 부여, 성취도별 학생 비율 환산, 원점수 등급화, 정성 평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정성 평가 역시 원점수가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공관대는 학생부 점수에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과목을 정성 평가해 20% 반영합니다.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종합 전형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취재 이지영 리포터 easygoing@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